

'93 제2검정소 우수농장상 수상농장 덕원농산



취재 : 정진영 기자

경남 하동에 소재한 본회 제2검정소가 지난해 시행한 종돈능력검정에서 우수농장상을 수상한 덕원농산.

인천직할시 남동구에 위치한 덕원농산(대표: 조진형)은 지난해 제2검정소에 출품한 29개의 농장중 141두의 종돈을 출품해 73.8%인 104두가 합격해 비교적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이중 5두가 챔피언에 선정되었으며, 출품돈의 평균 선발지수는 215점을 획득했다. 출품두수, 챔피언횟수, 합격두수, 선발지수, 합격률 등을 종합해 평가한 점수가 183점으로 활천농

장, 동림종돈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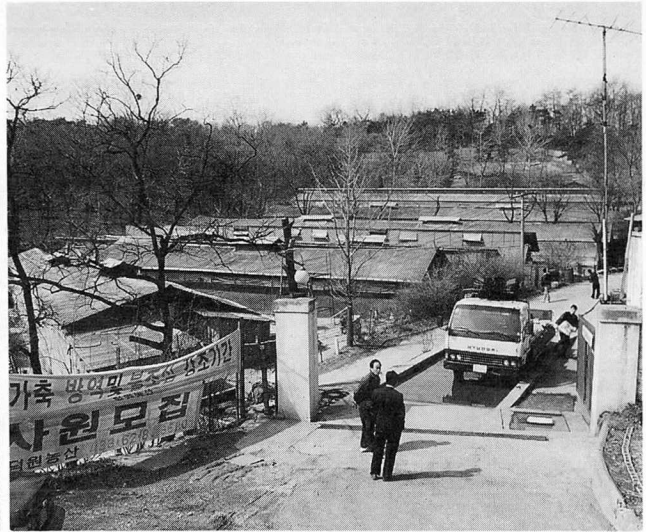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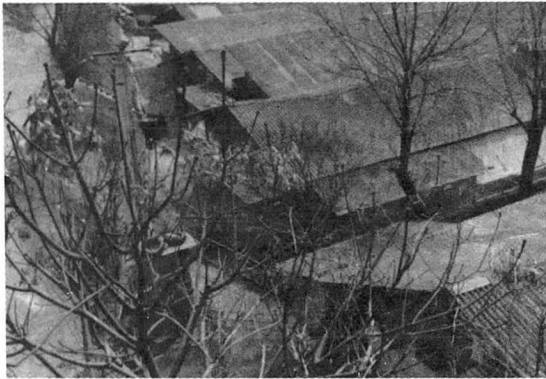
또한 '92년에는 제1검정소로부터 최다출품농장상을 수상했으며, 지금까지 모두 37두가 챔피언돈으로 선정되었다.

사육규모는 1농장(생산부) 2,500두, 2농장(사육부) 3,000두 정도이며, 그중 순종 모돈은 400두 사육하고 있으며, 보유품종별로 보면 랜드레이스 30%, 대요크셔 40%, 듀록 27%, 햄프셔 3%이며, 웅돈은 총 40두로 듀록 35%, 랜드레이스 35%, 대요크셔 30%로 구성되어 있다.

돈사는 총 20동(1, 2농장)으

로 현대화된 시설이 아니어서 돈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키 위하여 '80년 초부터 체계적인 질병예방프로그램에 의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모든 질병의 전파는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돈사입구와 관리자나 방문객들이 이동하는 곳은 모두 소독조를 설치했다. 그러나 대졸자들의 3D 기피현상과 수의사들 역시 농장보다 개업 위주로 진로를 선택하고 있어 농장에서는 고학력의 농장관리자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농장관리자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



며 위생, 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덕원농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축산농가의 현실이다.

돈사내의 소독은 종돈장의 경우 돈방별로 소독을 하고 있다. 소독은 우선 가성소다에 의한 1차 소독후 수세를 하고 다시 소독제(여러 종류의 소독제를 매번 교체하여 사용)의 순서로 한다.

종돈의 구입은 듀록을 위주로 하고, 과거에는 미국계통을 수입하였으나, 지금은 캐나다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백색계통은 덴마크에서 주로 수입한다.

종돈의 개량은 대체적으로

과거와 비슷하지만 방역에는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종돈과 비육돈 경영을 같이 하게 되면 자돈의 균일성이 떨어지게 되어 이곳에서는 종돈에서 도태되는 돼지만을 비육·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덕원농산의 돼지는 종돈과 더불어 육돈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덕원농산은 검정소 출품외에 자체적으로 월 30두의 농장검정을 함께 하고 있다. 선발기준은 체중, 등지방두께, 배장근단면적을 측정하여 종돈의 능력을 참고하고 있다. 앞으로 농장검정 두수를 월 60두로 늘릴 계획이다.

'91년 6월 5일 제2검정소 경매에서 덕원농산의 랜드레이스

(선발지수 253점)가 45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일반농장으로의 분양가격은 80kg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랜드레이스와 대요크셔 수컷은 70만원, 듀록은 45만원이고, 암컷은 모두 35만원에 분양되고 있으며, 1kg 증체당 2,500원씩 추가된다.

처음 양돈을 시작하면 3원 또는 4원교잡돈을 추천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순종에 비해 비육 성적 및 균일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완석 전무는 “농장의 지리적 여건으로 농장규모의 확대 계획은 없지만, 30여명의 직원들과 종돈의 개량 및 우수한 종돈의 보급에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